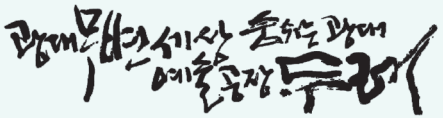
2017공연장 상주단체

예술공장 두레는...



삶의 연극, 진실의 연극, 함께하는 연극을 만들기 위해
1984년 충북 청주에서 창단해
충북의 지역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예술공장 두레는
늘 살아 움직이는 '숨 쉬는 광대' 로서
관객들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
활동하고 있는 창작연희단체입니다.
2017년 현재 〈증평문화회관〉에 상주하면서 작품연습,
생산을 이어나가고 있으며, 온 가족이 볼 수 있는
신명나는 마당극을 테마로
증평의 문화예술을 변화 발전시키는 데
목표를 두고 있습니다.

증평군청 홈페이지에서 상주단체 활동을 검색
예술공장두레(www.facebook.com/dureart1984)에서
그리고 증평군 내 관공서 등지에서
공연장상주단체가이드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.

증평문화회관

2017공연장상주단체 문화예술공연은

매 달 마지막 주 수요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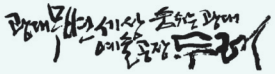
문화가 있는 날 과 함께 합니다.

http://www.culture.go.kr

주최

증평군 Jeung Pyeong

주관



후원

충북문화재단 Chungbuk Cultural Foundation

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

공연문의

Tel. 043-211-0752 / Fax. 043-211-1752

2017공연장상주단체

(사) 예술공장 두레 & 증평문화회관

우당탕탕 예술단

"증평을 들썩이다!"

4월부터 10월까지 매 달 마지막 주 수요일
신명나는 마당극 공연이 펼쳐집니다!

4월 | 우수레파토리공연

가족과 함께 연극나들이

‘착한사람 김삼봉’

옛말에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 했고
착한 사람은 보증서다 죄 망하게 되어 있다구!"

2017년 4월 26일(수) 오후 7시 30분

증평문화회관

공/연/특/징

〈착한 사람 김삼봉〉은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고, 되돌아보게 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. 비단 착한 사람뿐 아니라, 삶에서 ‘신념’이라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큰 용기를 줄 수 있음을, 배우와 관객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보고자 한다. 한국의 전통적 정서인 ‘마당’에서의 놀음에 영감을 얻고, 관객과의 끊임없는 호흡을 통해 관객 스스로 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, 다양한 소도구들을 이용해 일상의 풍경, 전통혼례 등의 볼거리를 마련하고, 탈춤에 기반한 쉽고 재미있는 안무를 통해 신명의 정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.





공/연/내/용

김삼봉은 착한 사람이다. 그의 모친 송씨는 영험하기로 소문난 장군봉, 노적봉, 문필봉을 찾아가 봉우리 신령들에게 그저 착하기 만한 자식을 점지해 달라고 지극정성으로 빈다. 그 결과로 김삼봉을 잉태하였으니, 이른바 ‘모태선인’인 것이다.
김삼봉은 착한 남편, 착한 아버지가 되려고 불철주야 더욱 노력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느라 빈털터리에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을 사고 아내마저 큰 병을 얻게 된다.
이 세상 모든 시련과 절망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는 착한 사람 김삼봉. 하지만 모든 부모들의 최대 강적인 자식들이 버티고 있는데...

착하게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착한사람 김삼봉의 좌충우돌 인생역정기!

제/작/진

작 김인경
연출 유순웅
안무 오세란
음악 김강곤
소품 극단 배꼽
조명 박판수
의상 수 공연미술
기획 김명진
음향 김강곤
진행 안혜경, 안기원

출/연/진

이석규, 조애란, 한명일, 진유리, 이성희
오세아, 신태희, 전아름, 김보람



우당탕탕
예술단